
경산지역의 초기철기 문화

– 진·변한 사회의 ‘주조제 철서(鐵鋤)’와 그 함의

정인성
영남대학교

| 목차 |

- I. 머리말
- II. 경산지역 출토 전국계 주조철기
- III. 진·변한 지역의 주조제 철서(鐵鋤) 자료 소개
- IV. 삼한지역 출토 철서의 편년적 위치와 ‘시간적 공백’
- V. 동북아시아 세계의 주조 철서와 삼한지역의 철서
- VI. 결 론

I. 머리말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자가 청동기학회에 요구받은 것은 ‘경산지역의 초기철기시대와 그 문화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학술대회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반부의 발표는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그리고 원삼국시대이다. 이는 한국고고학회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이기도 하다. 김원용의 정리 이래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에 후행하면서 원삼국(삼한)시대로 전개되는 과도기로 이해한다. 청동기가 더욱 성행하는 시대이면서 불완전하지만 철기가 출현하는 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실상 한국고고학에서 초기철기시대를 전 시기와 구분 짓는 기준은 철기의 출현보다는 점토대토기의 등장이 지표이다. 오랫동안 무문토기와 지석묘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와 점토대토기와 철기, 그리고 목관묘로 알려진 초기철기시대는 그 선후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최신 조사·연구성과를 살펴건대 두 문화요소는 비록 선후관계는 인정되지만 공존기간 역시 길었음이 인정된다.

최근 김해 구산동에서 발굴된 초대형 고인돌의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비교적 늦은 점토대토기는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구분이 애매해진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철기문화의 출현이 청동기에 후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철기의 출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알리는 지표로 이해되는 만큼 그 출현배경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고고학의 과제이다. 그리고 철기문화의 단계별 내용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고조선사회의 성장과 진·변한사회의 성립과 전개를 고고학적으로 살피는데 필수적인 연구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진·변한 사회가 성장했던 영남은 지금까지 드러난 고고자료로 보건데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철기의 자체생산이 가장 빨랐던 지역이었다.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의 대부분은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인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지역 내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배경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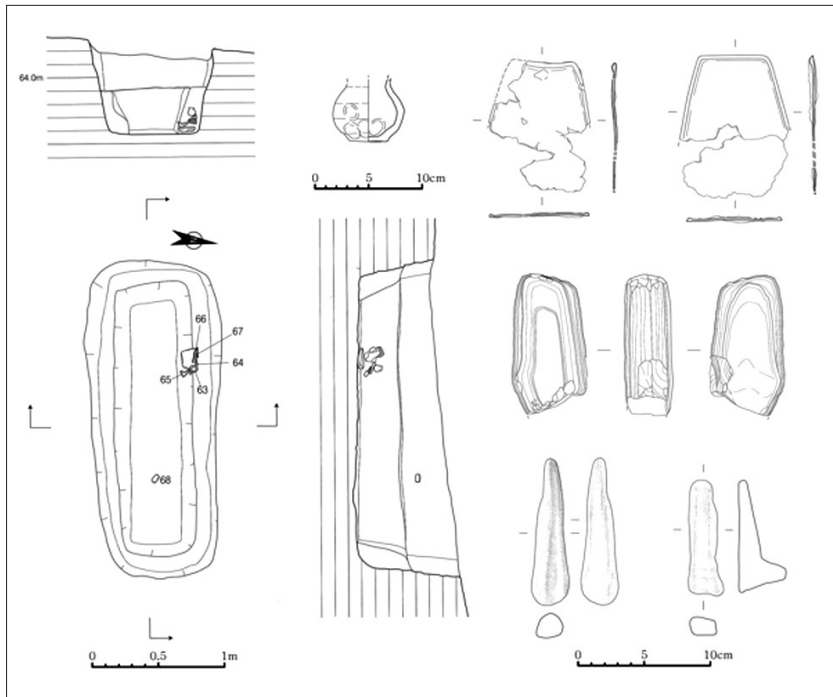
한편 경산지역은 대구분지와 함께 의외로 철기의 출현과 생산이 빨랐던 지역으로 알려진다. 대구 월성동 유적 뿐만이 아니라 경산 임당동과 신대리 유적과 대리리 등지에서 기원전 1세기대는 물론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철기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들 철기 자료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즉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철서와 형태가 유사한 주조철기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와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경산지역 출토 전국계 주조철기

경산지역의 내리리 유적과 임당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는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흡사한 주조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진한(辰韓) 철기문화의 기원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정치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조철기가 출토된 유적은 경산 내리리 4호와 임당동 A-I-141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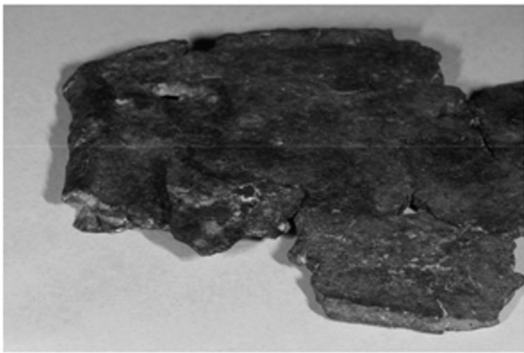
1)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

경산 내리리 유적은 진한시기의 목관묘로 구성되는 묘지이다. 이 중 4호 목관묘에서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 (도면 1) 2점이 출토되었는데 파손이 심한 편이다. 철기의 형태는 쇠호미 즉 철서(鐵鋤)로 불리는 것이다. 유물을 관찰해보면 탈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조 제품임이 분명하다. (도면 2, 3) 외연을 따라서 주조 과정에서 형성된 탕구부, 즉 쇠물을 부어넣은 부위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외측면의 상면을 따라서는 도드라짐 현상이 인정된다. 이는 단합범으로 주조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술속성이며 주로 중국의 전국시대로 소급되는 주조철서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 동반된 유물로는 파손된 유구석부편과 소형 점토대토기 호가 있다. 점토대토기는 구연부가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저부는 평저이며 태토와 소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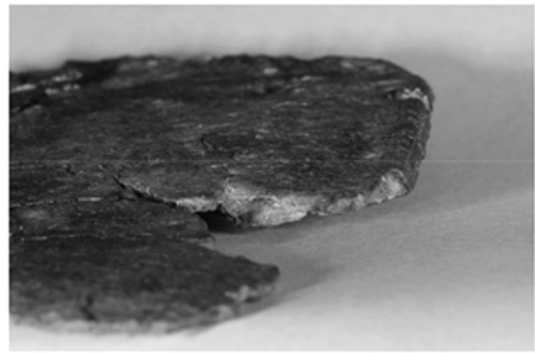


〈도면 1〉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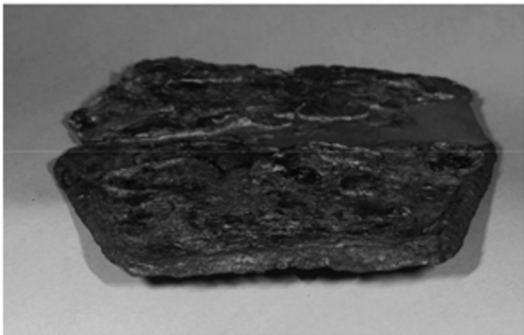
위기는 무문토기류에 속한다. 기원전 1세기대에도 산견되는 토기이지만 기원전 2세기대로 소급될 수 있는 토기이다. 유구석부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기였다면 기원전 2세기대라는 시기는 더욱 보장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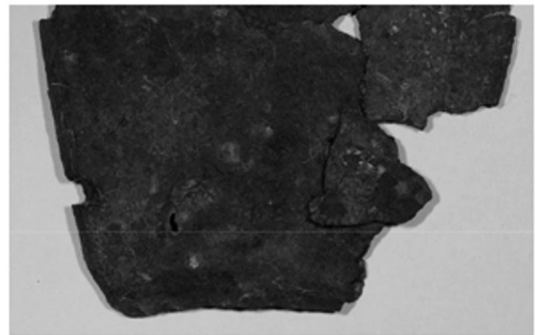
측면의 융기부



측면 외연의 융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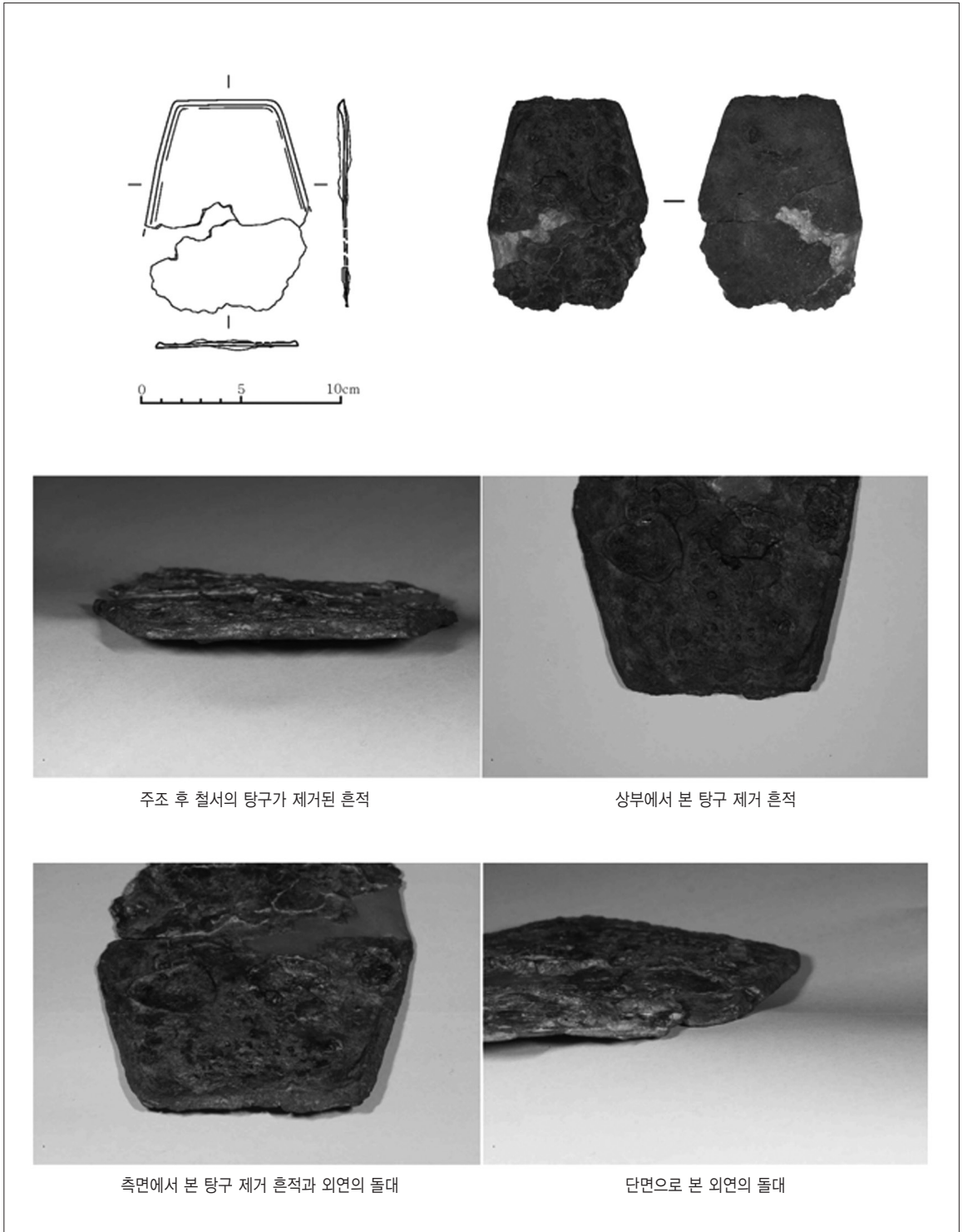


주조 후 탕구가 제거된 흔적



상부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

<도면 2>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1



주조 후 철서의 탕구가 제거된 흔적

상부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

측면에서 본 탕구 제거 흔적과 외연의 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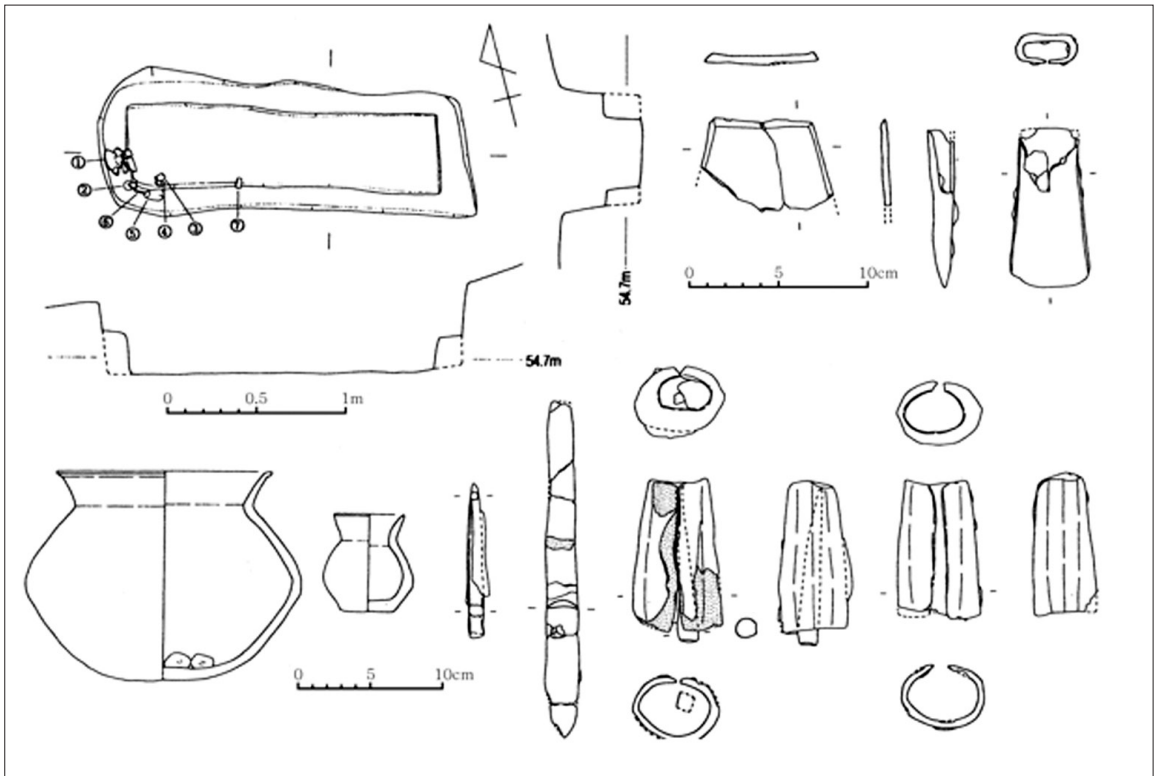
단면으로 본 외연의 돌대

<도면 3> 경산 내리리 4호 출토 주조철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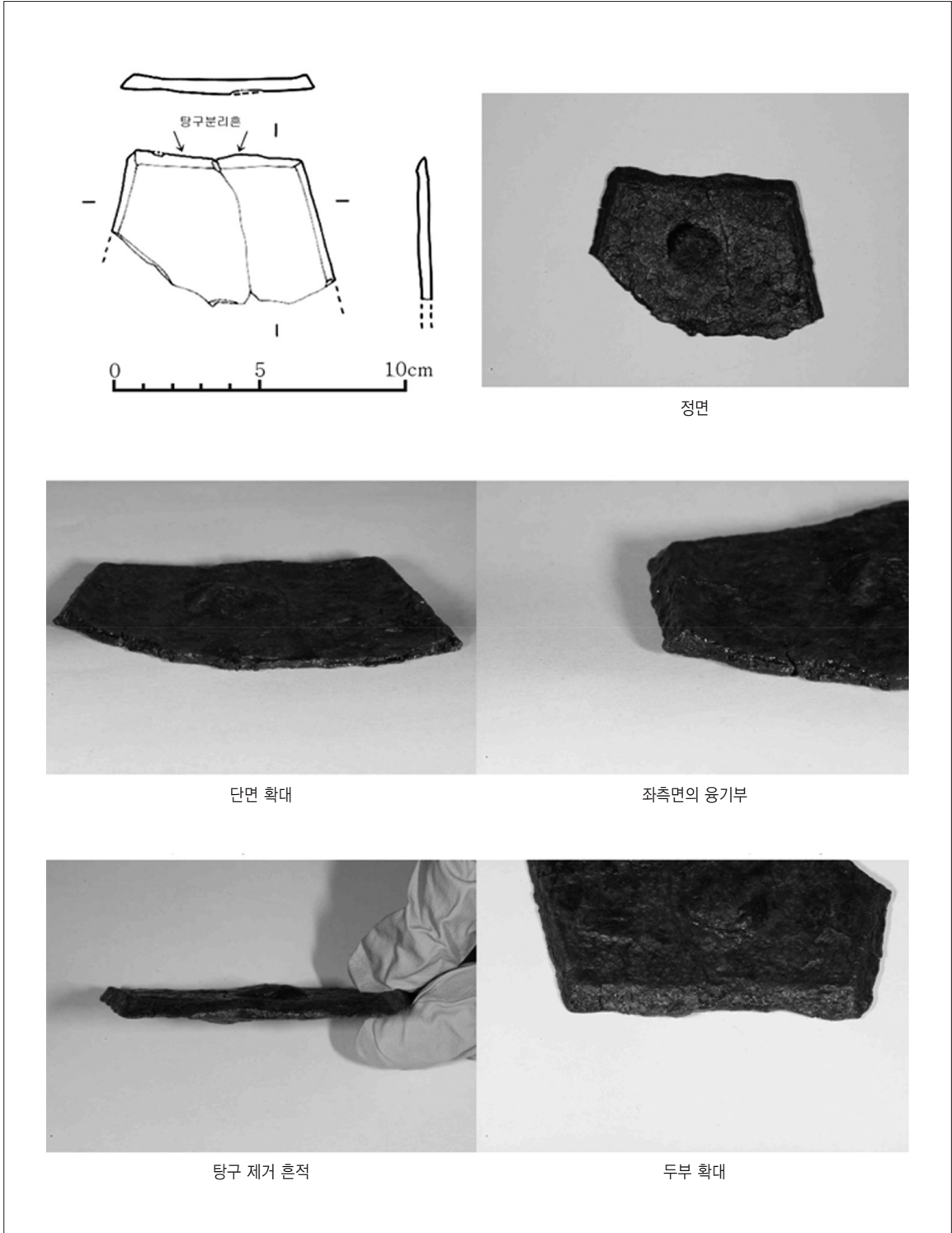
2)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

경산 임당동 A-I-141호도 목관묘인데 여기서도 주조제품으로 보이는 쇠호미 즉 철서 1점이 출토되었다.(도면 4) 철서는 두부만이 부분적으로 남았을 뿐 나머지 부위는 모두 결실되었다. 그렇지만 측면 상면의 도드라짐도 인정되고 두부의 탕구 절단흔도 관찰된다.(도면 5)

같이 출토된 유물로는 와질토기 단경호와 소형 평저호가 주목된다. 평저호는 평저에 무문토기로 평가된다. 단경호는 문양이 없는 것으로 이 기종으로는 고식으로 평가된다. 주머니호와 같은 편년에 표지적인 유물은 없지만 무문토기가 동반되고 고식의 와질토기 단경호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고려하면 기원전 1세기 전반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와질토기 출현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유구이다.



〈도면 4〉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도면 5〉 경산 임당동 A-I-141호 출토 주조철서

Ⅲ. 진·변한 지역의 주조제 철서(鐵鋤) 자료 소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진·변한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주조제 철서의 출토사례가 있다.

1) 창원 다호리 61호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점의 주조 철서가 출토되었다. 그 중 61호 목관묘에 4점이 부장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들 철서도 모두 주조제인데 동일한 거푸집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각각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철서는 평면 사다리꼴이며 머리 부분이 좁고 그 반대쪽 인부가 넓은 전형적인 형태이다. 인부에 사용흔이 관찰되는 자료는 없다.

유물을 직접 관찰한 결과 잔존상태가 가장 좋은 철서(도면 6-1)는 두부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된다. 보고서의 도면에는 둥근 형지공이 철서의 상위에 치우쳐서 표현되었지만 실물을 관찰한 결과 이는 제작시에 의도된 형지공이 아니었다. 주조시에 의도된 형지공은 이보다 조금 아래에서 관찰되었다. 위원 용연동 등지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철서와 형지공의 위치가 유사하다. 또 양 측면의 외연은 위쪽 방향으로 도드라진다. 이 역시 위원 용연동 등의 전형적인 주조 철서와 동일하다. 형지공의 단면 형태가 사다리꼴인 점을 더해서 생각하면 이 철서가 단합법으로 주조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부에서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면 6-2는 보고서 도면에 두부 쪽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구멍이 뚫린 제품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관찰 결과 두부 쪽의 구멍은 의도되지 않은 주조결함에 의한 결과이며 인부 쪽으로 치우친 구멍 역시 파손의 결과로 판단된다. 즉 제작시에 의도된 형지공은 중간에 형성된 것 하나이다. 두부의 상면에는 타격에 의한 탕구 절단흔이 남아 있다. 인부는 선단이 부채꼴로 곡선을 이룬다. 일견 사용에 의한 마멸의 결과로 보이거나 실물 관찰에서는 적극적인 사용흔이 포착되지 않았다. 또 보고서 도면에는 좌우측 외연 상면에 돌기의 표현이 없으나 실제로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중앙 형지공의 단면이 사다리꼴인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이 철서 역시 단합법으로 주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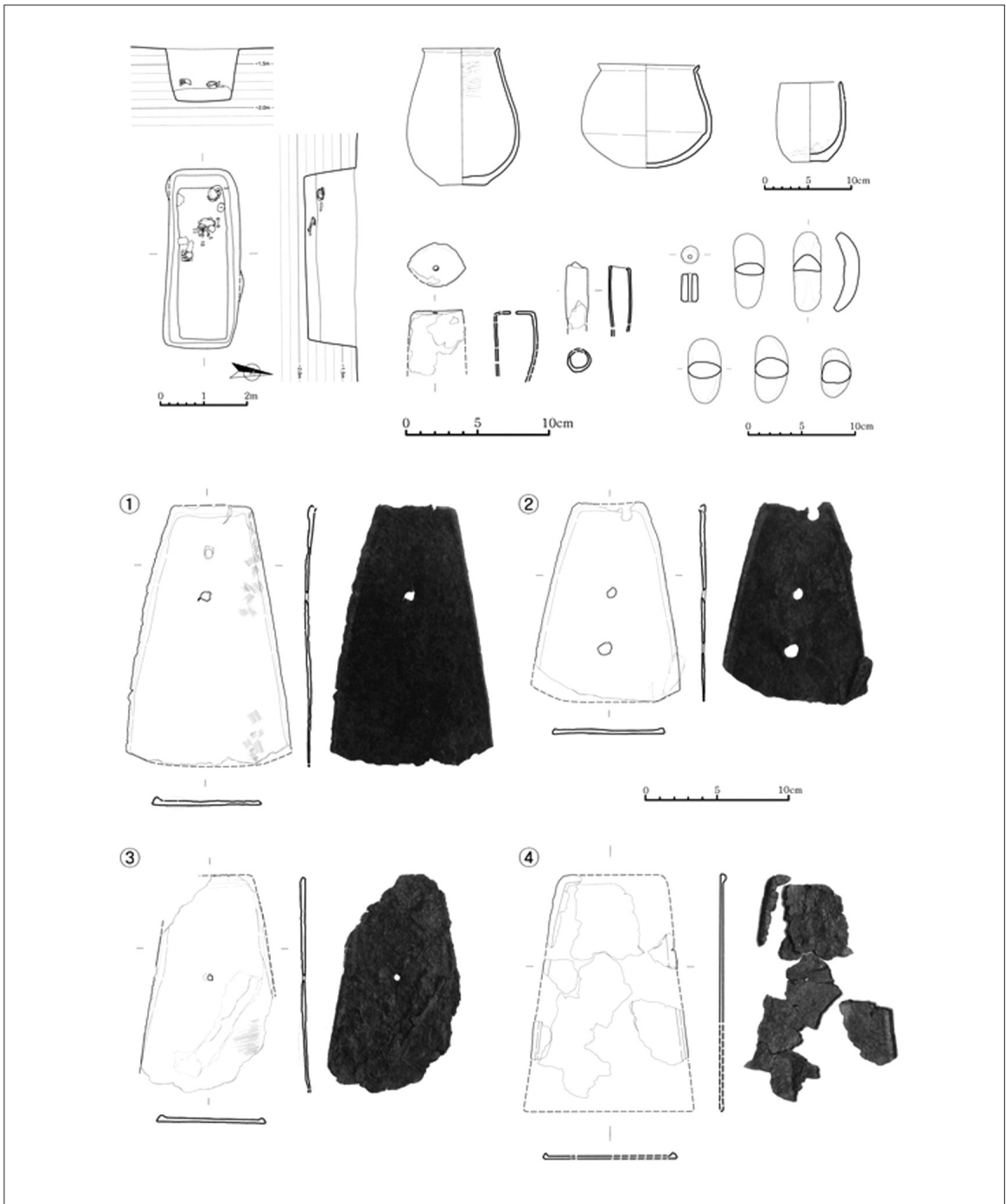
도면 6-3은 부분적으로 박락과 파손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철서의 형태를 이룬 것이다. 좁은 두부에서 인부로 직선적으로 넓어지는 형태이다. 좌우측 외연에는 보고서 도면에는 두드러지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돌기가 형성되었으며 중앙부에 둥근 형지공도 관찰된다.

도면 6-4도 인부 쪽의 잔존상태는 좋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주조철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좌우측 외연에서 돌기가 관찰된다. 인부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철늑과 함께 고착된 포흔이 관찰된다. 주조 철서를 보자기로 써서 매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흔적으로 보인다.

다호리 61호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관찰하니 이 외에도 철서의 파편으로 보이는 철편 2점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위에서 살핀 철서에서 탈락된 철편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부장된 철서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동반된 유물에는 토기류가 3점이다. 주머니호로 분류되는 토기 2점과 컵형토기 1점인데 무문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주머니호로 기재된 원저호의 경우 실물은 좀 더 평저에 가깝다. 태토 역시 완전한 와질 토기가 아니다. 조양동 5호와 가까운 시기의 목관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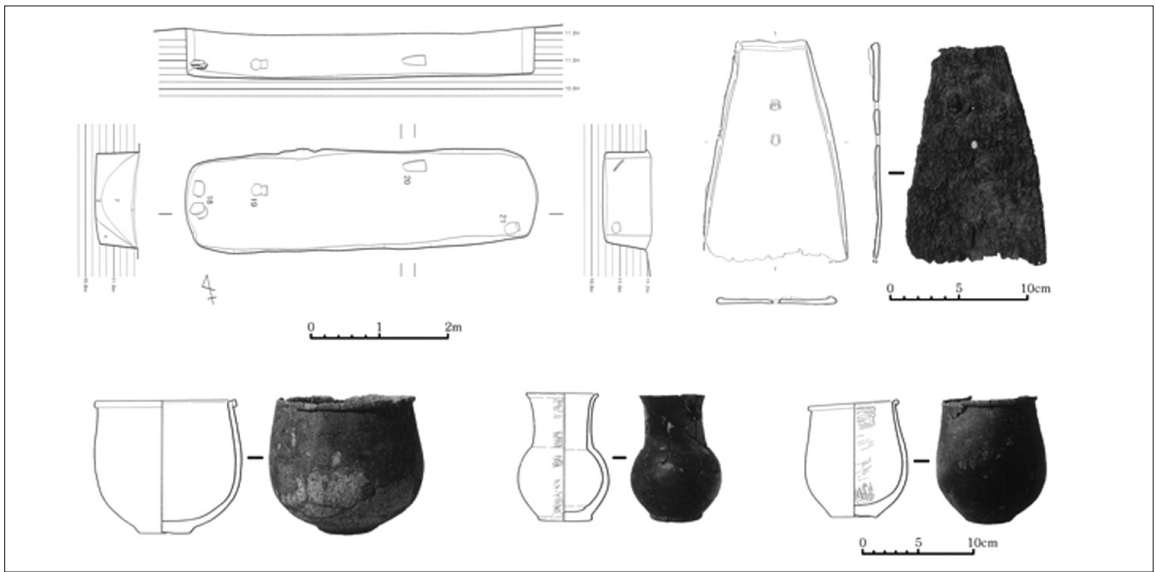


〈도면 6〉 창원 다호리 61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2) 창원 다호리 77호

다호리 77호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7) 좁지만 평탄한 두부에서 인부로 가면서 곡선을 띠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그 크기와 형태가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서와 거의 흡사하다. 보고서 도면에는 신부에 상하 2개의 형지공이 표시되어 있는데 실물을 살펴건데 두부에서 가까운 구멍이 주조시에 의도되었던 형지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우 측면에 위로 도드라진 돌기가 인정되며 두부에도 돌기가 있다. 이 역시 위원 용연동의 철서와 흡사한 특징이다. 인부는 전체적으로 결손이 인정된다.

동반되어 출토된 토기는 3점인데 모두 산화염으로 소성된 무문토기이다. 2점은 굽이 부착된 주머니호이며 나머지는 평저장경호이다. 조양동 5호와 비교되는 토기조합인데 다호리 61호보다는 고식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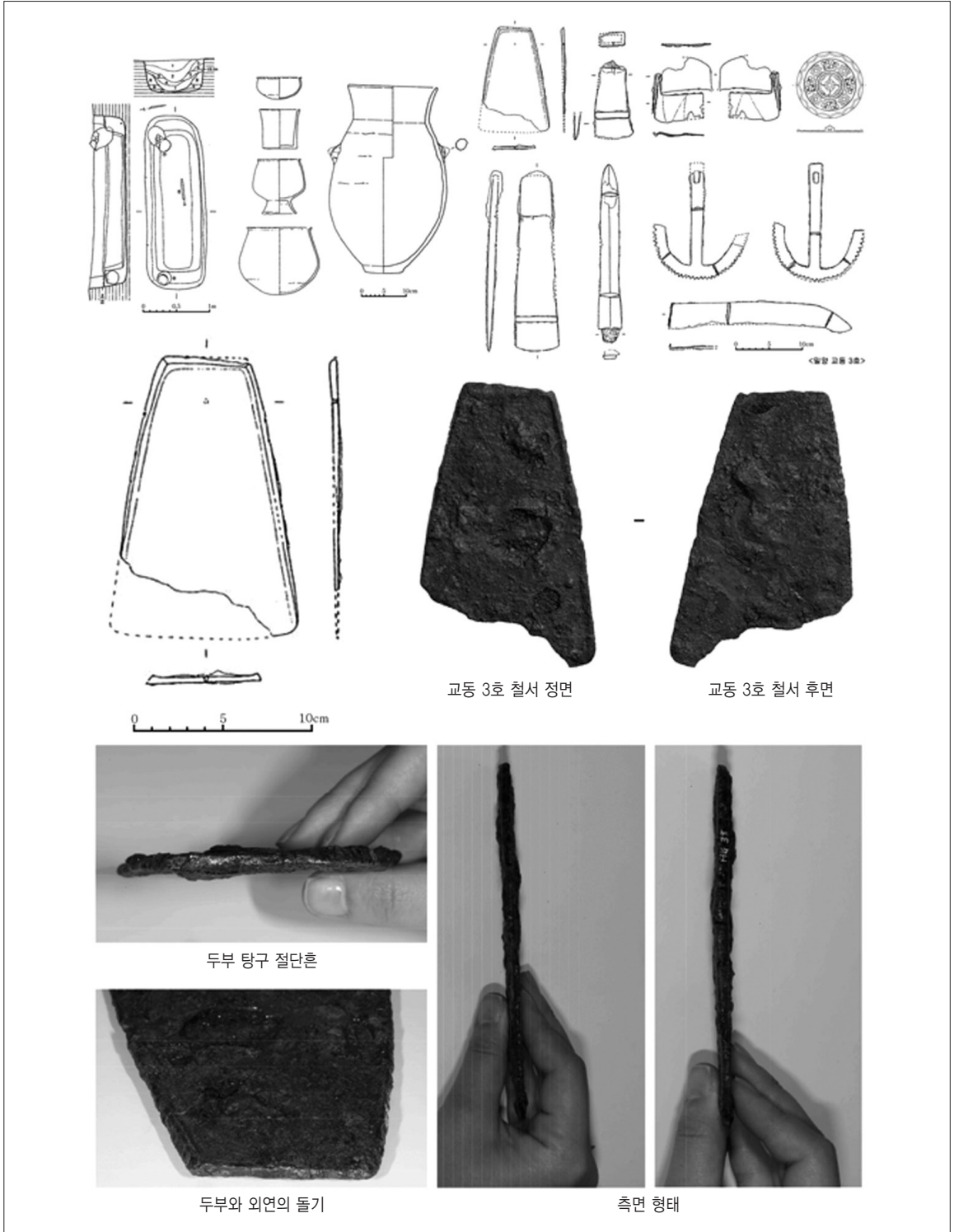


〈도면 7〉 창원 다호리 77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3) 밀양 교동 3호

밀양 교동 유적에서도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8) 그 형태는 다호리 66호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다만 형지공이 약간 더 두부에 치우쳤으며 직경도 작다. 좌우 측면의 외연을 따라 위쪽으로 도드라짐 현상이 인정된다. 아래쪽 날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다. 두부에는 역시 다호리와 동일하게 탕구 절단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주조제 철서임을 증명하는 속성이다. 물론 단합범으로 제작된 것이다.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인부가 훼손된 상태를 관찰하건데 탈탄된 부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반 출토된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주머니호이다. 완전하게 와질화된 토기로 발표자의 연대관으로는 기원전 1세기 2/4분기에 해당하지만 1/4분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동반 출토된 성운문경은 이 연대관을 지지한다. 와질제의 꺾형토기와 완형토기 등도 동반되었으며 굽이 있는 양이호는 산화염소성의 무문토기제이다. 철기로는 판상철부와 철검, 그리고 철검과 닮형철기 등이 있다.



<도면 8> 밀양 교동 3호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4) 경주 황성동 출토유물

이 외에도 경주 황성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도 철서가 출토된 바 있다.(도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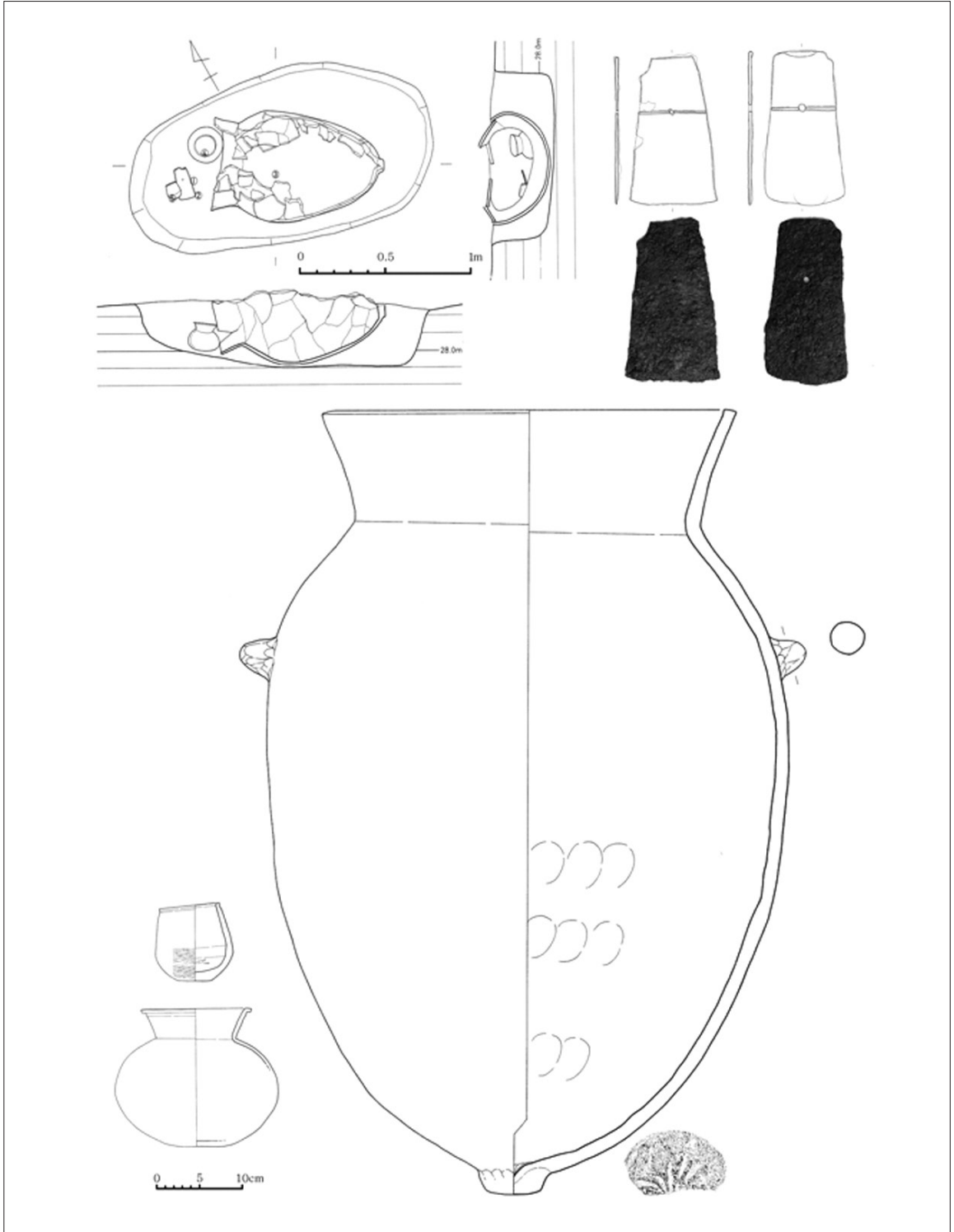
도면 10는 두부가 직선적이고 인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신부의 중상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위에서 살핀 주조제 철서처럼 그 단면 형태가 사다리꼴이 아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뚫은 것으로 보인다. 두부와 좌우 측면을 따라 돌기도 관찰되지 않는다. 표면에 녹 피막이 주조제 철서와 다르게 켜켜이 형성된 것을 보면 단조제 즉 두드려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처럼 두부에서 탕구 절단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두드려서 얇게 만든 철판을 재단하여 주조제 철서와 비슷한 형태를 만든 다음 신부에 구멍을 뚫어서 마무리 한 것이다.

도면 11도 그 특징이 도면 10과 유사하다. 다만 인부가 둥글게 마무리된 점, 그리고 두부의 일부가 두드려 접힌 점도 주조제 철서와 다른 점이다. 신부에 형성된 구멍도 주조제 철서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 단면이 사다리꼴을 띠는 것도 아니다. 좌우 측면에 돌기가 없는 것도 차이점이다. 표면에 형성된 녹의 특징을 더하여 살피건데 단조제임은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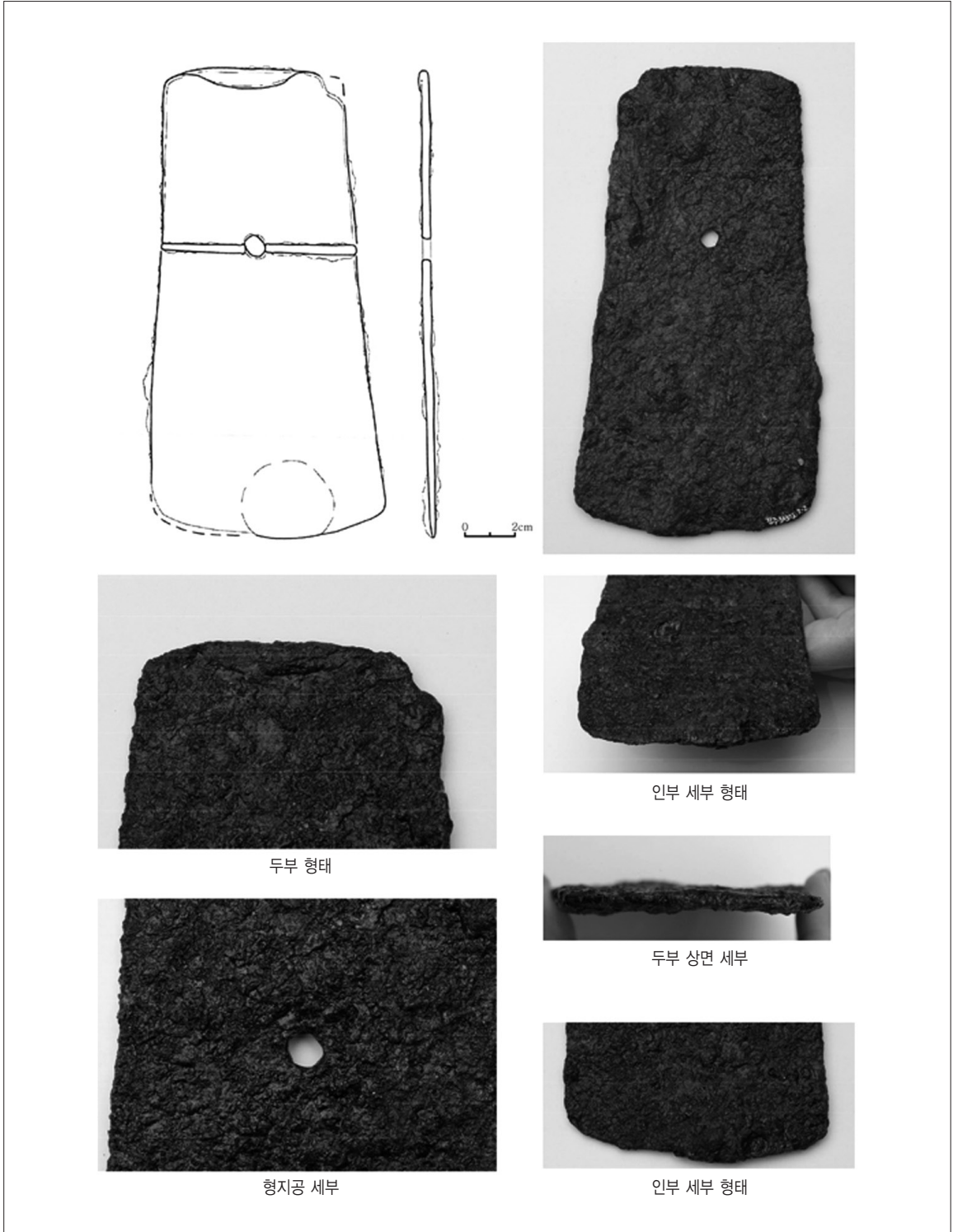
5) 나주 구기촌 출토 철서

진·변한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나주 구기촌에서도 주조제의 철서가 출토되었다.(도면 12)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철서와 평면형태는 비슷하지만 신부에 형성된 형지공이 대단히 큰 것이 특징이다. 두부 상면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되는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주조제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주조제 철서는 탕구의 폭이 좁은데 비해서 구기촌의 철서는 두부 상면 전체에서 탕구 절단흔이 관찰된다. 거푸집의 탕구 설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두부 상면과 좌우측 외연을 따라 융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거푸집의 제작법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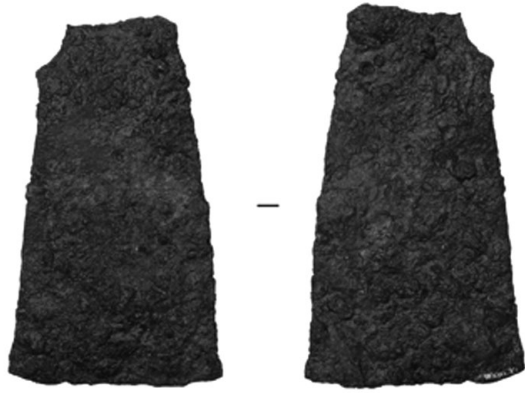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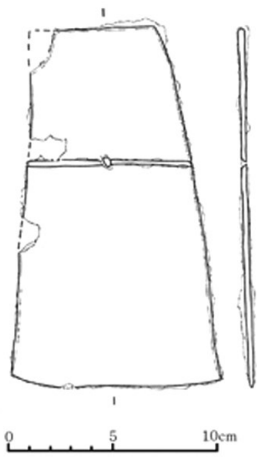
동반되어 출토된 토기들은 굽이 형성된 점토대토기 계열의 것이다. 영남지역이라면 와질토기가 출현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나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의 경우 와질토기의 출현이 늦은 점을 고려하면 그 편년적 위치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도면 9〉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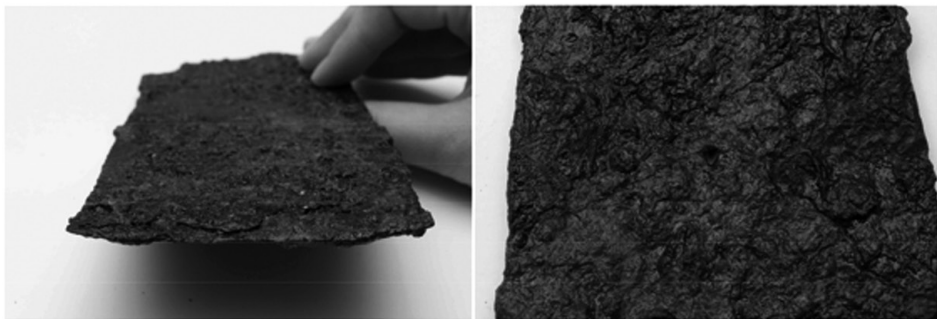


<도면 10>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1



상면 정면 모습 - 탕구 제거흔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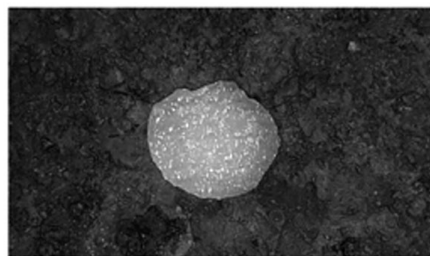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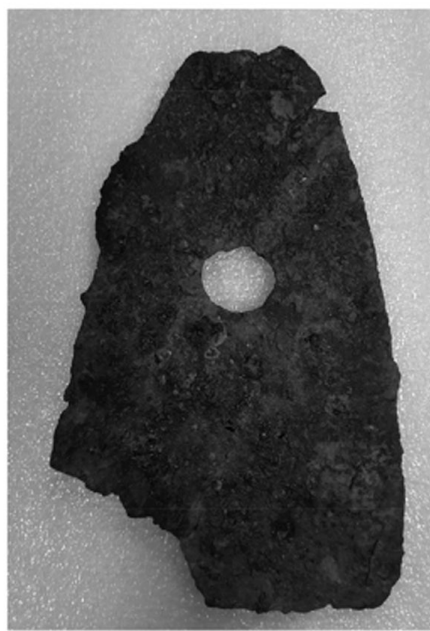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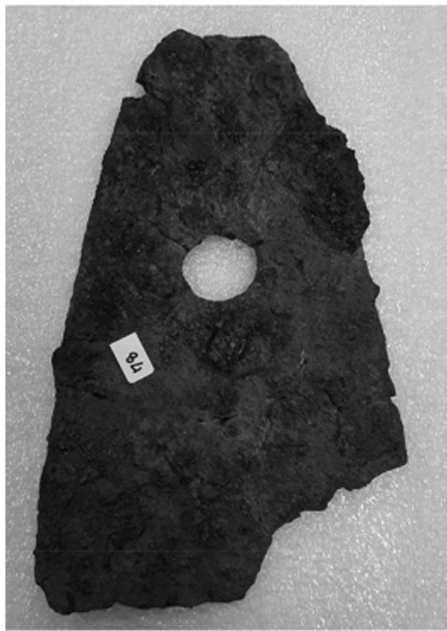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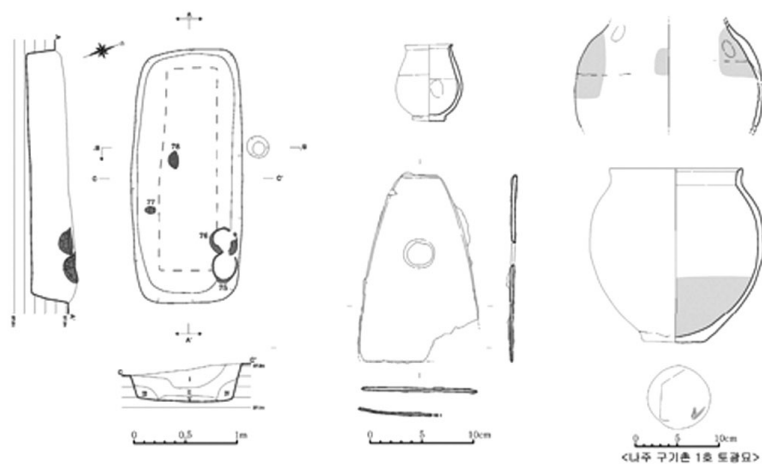
상면 모습 - 탕구 제거흔적 없음



외면에 돌대 없음, 단조품의 철녹 확인

정면에서 본 형지공의 천공모습

<도면 11> 경주 황성동 출토 주조철서2



두부 탕구 제거흔

형지공 확대 모습

<도면 12> 나주 구기촌 출토 주조철서와 동반유물

IV. 삼한지역 출토 철서의 편년적 위치와 ‘시간적 공백’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철서 자료는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위원 용연동형 철서이다. 주조제이면서 두부가 좁고 인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이다. 두부 외연은 물론 좌우 측연을 따라서도 한쪽 방향으로 돌기(용기선)가 형성된다. 아울러 신부의 중상위에 직경이 작은 둥근 형지공이 뚫려 있다. 두부의 상단 중앙에 비교적 좁은 탕구가 설치되는 점도 중요한 공통점이다. 다호리 77호와 61호의 모든 철서, 밀양 교동, 그리고 경산 내리리와 임당동에서 출토된 철서가 이 형식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나주 구기촌형이다. 좁은 두부에서 인부로 가면서 약간 곡선을 띠면서 넓어지고 인부는 직선적으로 마무리된다. 두부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 용기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신부의 중상위에 둥글고 큰 형지공이 형성된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서 중에서는 나주 구기촌 출토품이 유일하다.

세 번째는 경주 황성동형이다. 단조제로 좁은 두부에서 비교적 직선적으로 넓어져서 인부로 전개된다. 좁은 결박공이 신부의 중상위에 위치한다.

용연동형 철서와 동반되는 토기는 대부분 무문토기류인데 정확하게는 점토대토기류이다. 다호리 77호는 형식(形式)차가 있는 주머니호 2점과 굽 달린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주머니호는 저부에 평저보다 선행하는 굽이 형성되었고 구연단에는 따로 만들어 돌린 점토피가 돌아간다. 장경호도 그냥 평저가 아니고 굽이 부착된 것이다. 조양동 5호와 비교되는 토기 조합인데 점토대토기 중에서 주머니호 기형이 출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발표자의 연대관으로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상당한다.

다호리 61호에서도 주머니호 2점이 출토되었다. 한 점은 저부의 형태가 굽형에서 탈피한 평저이고 또 한 점은 평저기미이면서 원저화가 진행된 형태이다. 평저기미의 주머니호는 다호리 1호보다도 고식 단계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여 기원전 2세기 4/4분기이거나 기원전 1세기 1/4분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경산 내리리 4호에서는 소형 무문토기 평저호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 상대편년을 시사하는 기종이 아니어서 명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원전 1세기 1/4분기 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합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유구석부가 안정된 동반품이라면 그 시기는 더 소급될 수도 있다.

임당동 A-I-141호는 와질화가 진행된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점이 중요하다. 내리리 4호와 같은 무문토기 소형 평저호가 있지만 와질토기 원저호로 볼 때 기원전 1/4분기 정도가 안정된 연대일 것이다.

밀양 교동 3호에 동반된 토기들은 모두 와질토기화가 진행된 것이다. 전형적인 주머니호는 완전한 원저에 동체 상위는 내만하고 구연단부는 꺾여서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에 별도의 점토피를 붙인 것은 아니다. 대부주머니호 역시 저부와 동체부 그리고 구연단부의 형태가 동일하다. 완형토기는 둥근 저부에 살짝 외반하는 구연단부가 특징인 토기이다. 기원전 1세기 2/4분기의 유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성동 유적에서는 문화재보호재단이 발굴한 1호 옹관묘에서 단조제 철서가 2점이나 포개진 채로 출토되었다. 동반된 토기들은 평저기미의 단경호와 주머니호의 일종으로 분류될 듯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이들

토기 2점을 와질토기라고 평가하였으나 석사립이 다량 함유된 토기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 완성형의 와질토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옹관으로 사용된 대형토기는 어깨부의 두귀(兩耳)가 소형화되었고 저부에는 작은 굽이 달렸다. 저부의 작은 굽은 그 내면에 조자기 주름이 형성되었다. 토기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도치성형으로 저부를 마무리한 결과이다. 이 역시 무문토기가 와질토기화 과정에서 등장한 기법이다. 결국 황성동의 철서들은 동반 유물들로 보아 기원전 1세기 1/4분기 정도로 편년된다. 물론 조금 더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유물 조합이다.

한편 영남지역은 아니지만 나주 구기촌 출토 철서는 동반 토기들의 형태로 교차편년을 해 본다면 창원 다호리 77호 단계에 비정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대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머니호 기종이 유행하지 않고 바로 와질토기화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영남지역 상대편년 안과 역연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련 자료의 출토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바,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철서들은 낙랑군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반입되었거나 생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시대 연국의 강역에서 이들 주조 철서들이 생산되고 유행하던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 이전이지만, 진·변한 지역에서의 무덤 부장시기는 빠른 것이라도 기원전 2세기 후반대라는 점이다. 분명히 의미있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진·변한 지역에서 철기 생산의 개시가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철기문화의 확산은 일률적이지도 일원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V. 동북아시아 세계의 주조 철서와 삼한지역의 철서

이상 살핀 것처럼 진·변한 지역과 마한지역에 비교적 다수의 ‘주조 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들 철기들이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중국 전국시대 철기류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지역에서의 출토 시점은 기원전 2세기대 후반부터이기 때문에 전국시대 연국 철기와 진·변한지역 주조철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분명한 ‘시간적 공백’이 인정된다. 이 시간적 공백은 최근 일본고고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주장되었던 ‘전국시대 연국 강역의 확대와 철기의 확산’이라는 설명들의 모순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주조철기가 낙랑고지에서 출토사례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낙랑군의 치소이자 조선현의 현치라고 이해되는 낙랑토성에서는 다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근년 발표자는 이를 직접 조사하여 소개했는데 그중에서 주조 철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발굴 역사가 있는 낙랑고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은 주조제 철서를 포함한 영남지역의 초기철기 생산체계가 낙랑군의 영향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해 준다. 오랫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낙랑군(문화) 영향설’로도 진·변한의 철기생

산 개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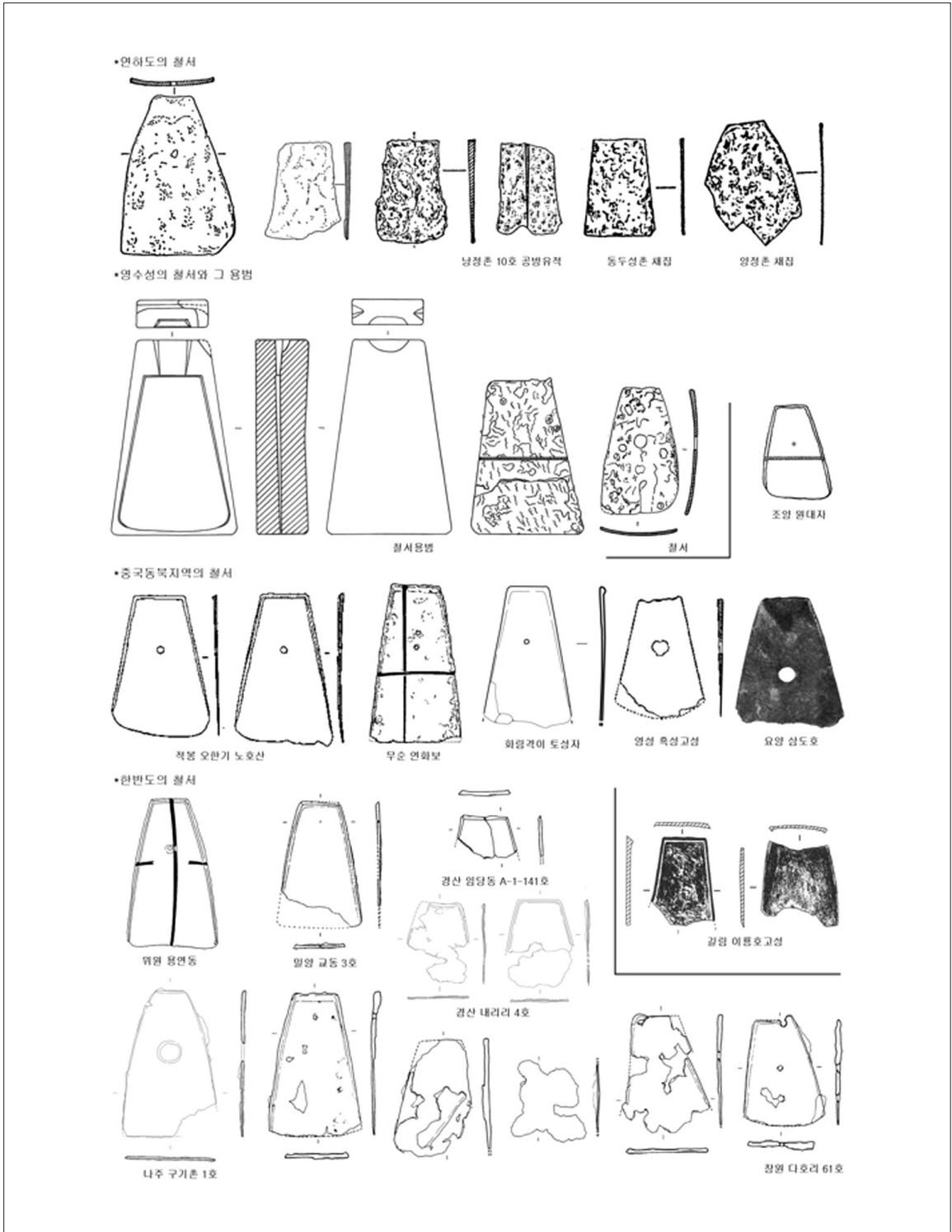
진·변한 사회에서 출토되는 주조제 철서의 시공간적 위치와 그 함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적인 시선에서 관련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시대 연국의 수도 중 하나인 하북성 연하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하도에서 출토된 철서는 영남지역의 철서와 외형이 닮은 것도 있지만 형지공이 없거나 형태가 다른 것이 더 많다. 특히 일부 쪽에서 외연이 외반하는 형태는 크게 이질적이다. 보고서에는 두부와 측연을 따라 용기돌선이 표현되지 않은 자료도 소개되었다. 보고서의 도면에 이 속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 판단하건대 연산산맥 이남의 연국 강역에서 출토된 철서는 진·변한의 주조 철서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연국과 인접했던 중산국의 영수성에서도 주조철서와 거푸집이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공개된 거푸집 자료는 외연의 용기돌선이 없는 형태이다. 이 거푸집에는 형지가 설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실물 자료에서 형지공이 없는 철서가 있는 이유도 설명된다. 탕구를 경사지게 만든 점도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주조용의 거푸집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주조된 제품에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고 탕구를 제거하기 위한 고안이다. 실제로 진·변한 지역의 일부 철서 자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된 탕구흔이 있는 자료가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세계에서 철서 자료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찰 속성이라고 평가되지만 실물 관찰을 경험한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기여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리고 영수성 출토 철서 자료에는 신부가 휘어진 것이 있다. 이것이 주조제인 것을 감안하면 거푸집을 곡면으로 설계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철서는 중국 동북지역이나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다. 이상 연하도와 영수성 등지에서 출토된 철서들은 진·변한 지역의 철서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국의 전통적인 강역을 벗어나 연산산맥의 동북에 해당하는 내몽고 지역의 적봉 오한기의 노호산 유적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철서는 의외로 영남지역의 주조 철서와 유사도가 높다. 전체적인 형태, 두부와 좌우 측연의 용기 돌선, 그리고 형지공의 위치와 크기도 그러하다. 화림격이 토성자 출토 철서도 형태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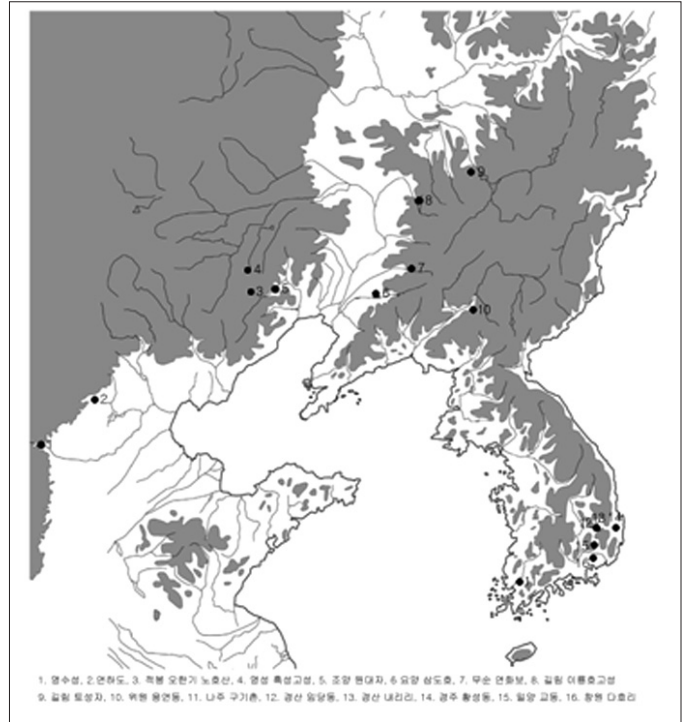
요서지역에서 연국의 물질문화 요소가 확인되는 유적인 조양 원대자에서도 철서가 출토되었다. 비록 인부가 닮아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속성에서 진·변한의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같은 요서지역인 영성의 흑성 고성에서는 형태가 약간 다른 주조철서가 출토되었다. 도면으로 보아 두부 전체에 파면이 형성되었고 신부 중앙에 둥글고 큰 형지공이 뚫린 형태이다. 두부 전면의 파면은 탕구가 두부의 폭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탕구가 두부의 중간에 좁혀서 설계된 대다수의 철서 사례와 비교된다. 지금까지 실물을 확인한 자료로는 시기가 빠른 것일수록 탕구의 폭이 좁은 경향이 인정된다. 특히 한대(漢代) 제국(齊國)의 강역에서 출토된 철서 중에는 두부와 폭이 동일하게 설계된 거푸집이 확인되었다. 어쨌거나 흑성고성의 자료는 나주 구기촌 자료와 연결된다. 다만 외연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도면 13〉 동북아시아 각지의 '주초철서'

요동지역의 자료를 살피건대 요양 삼도호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가 주목된다. 이 역시 나주 구기촌의 철서처럼 신부에 큼직하고 둥근 형지공이 뚫린 것이다. 실물 자료를 살피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보고문의 도판에는 좌우 측연을 따라서 용기돌선이 관찰된다. 구기촌 철서와는 다른 점이다. 요양 삼도호는 전국시대 후기에서 전한대에 걸치는 취락유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토기로 보아서는 전한대와 후한대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한편 무순 연화보에서 출토된 철서는 형태적으로도 제작기법의 면에서도 진·변한의 철서와 유사도가 높다. 두부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 형성된 용기돌선과 단면이 경사지는 형지공의 형태는 물론 그 위치도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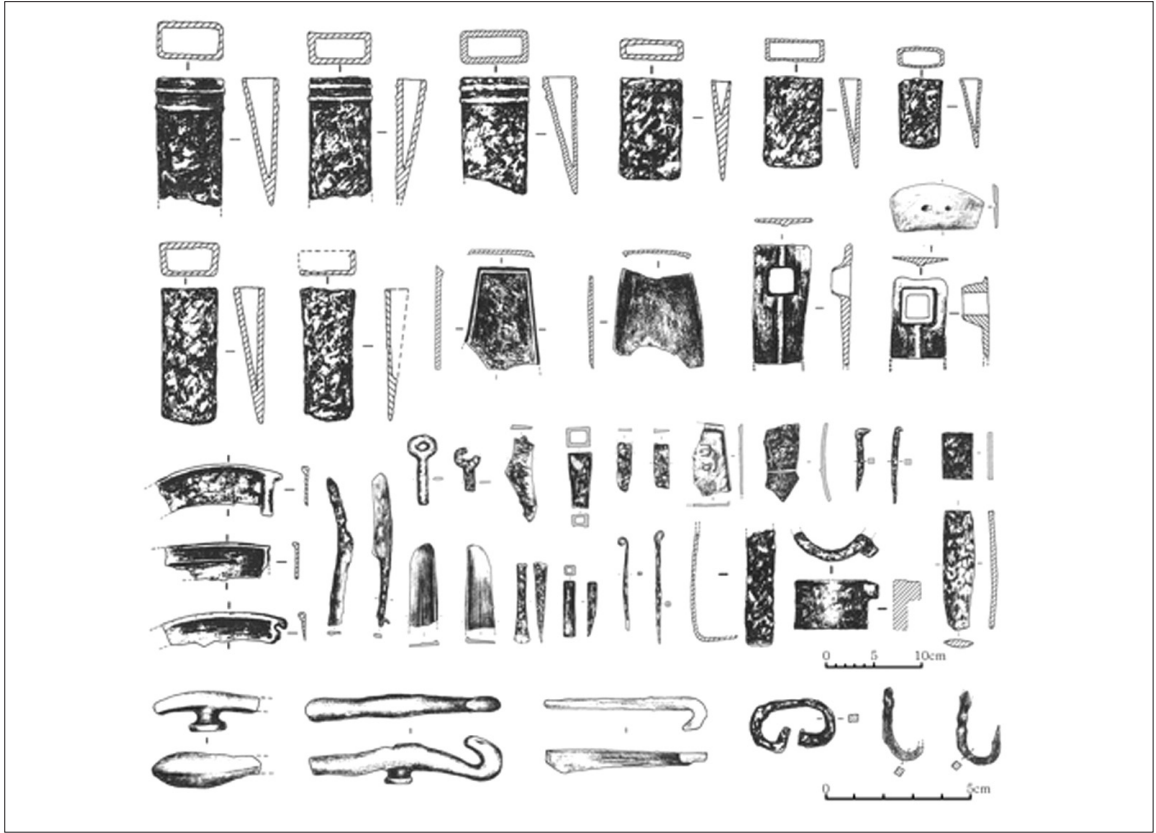
〈도면14〉 주조철서가 출토된 대표 유적의 위치

그리고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서는 영남지역의 그것들과 더욱 닮아있다. 두부에서 인부로 전개되는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이고 형지공의 위치와 좌우측 외연을 따라서 형성된 용기돌선도 매우 유사하다. 용연동에서 출토된 철서와 철모 역시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이 영남지역에서 출토된다.

길림지역의 이룡호고성에서 출토된 철기들도 중요하다.(도면 15) 연산산맥 이남에서 유행한 철기들이 다수 확인되는 한편 요동지역에서 특화된 철기들도 관찰된다. 그중 주조철서는 영남지역은 물론 연화보나 위원 용연동의 것과 형태상 흡사하다. 철서 중에는 문자가 압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시대 연국 공방에서 제작된 철기라는 의견이 있다. 이 토성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는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대표적인 토기인 요동식 부형토기가 닮은 토기가 있다. 큰 틀에서 세죽리-연화보와 공통분모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최근 중국 산둥성에서 발견되었다. 임치의 제국고성과 동평릉고성이 대표적이다.(도면 16) 제국고성에서는 한대의 공방유구와 수혈에서 철서가 출토되었는데 구기촌 철서처럼 신부 중앙에 큰 형지공이 형성된 것이 많다. 형지공은 네모진 것과 원형이 있다. 현지에서 실물을 관찰한 결과 두부 전체에 탕구 절단흔이 관찰되는 것이 많으며 외연을 따라 용기돌선이 없는 것도 있다. 또 동평릉고성의 한대 공방에서도 다수의 철서와 거푸집이 출토되었다. 거푸집에는 신부의 중앙에 둥근 형지공과 네모진 형지공이 모두 관찰된다. 철서 두부의 폭과 동일하게 설계된 탕구가 설치된 것도 있다.

결국 지금까지 동아시아 세계에서 출토된 철서 자료를 살피건대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는 한대 산둥지



〈도면 15〉 길림 이릉호고성의 주조철서와 각종 철기

역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성고성과 삼도호 유적에서 출토된 한대 산동형 철서들의 경우 현 지에서의 제작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산동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요동지역에서 발견되는 한대 산동산 물품의 증가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경산 임당동에서 출토된 초엽문경은 대표적인 산동산 한경이며 사천 늑도에서 출토된 ‘S’자형 대용의 경우도 산동에서 생산된 물품이다. 물론 낙랑군 설치 시기보다 빠른 기원전 2세기대의 물품이다.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반량전도 이 역연대를 지지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진·변한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용연동형 철서는 연산산맥을 넘어서 설치된 연장성과 관련된 지역의 출토품과 닮아있다. 그리고 이들 연산산맥의 북동지역을 따라 형성된 장성 유적들은 흔히 연의 동진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짧은 시기에 조성되었다가 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존속시기가 짧다. 구체적으로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역연대가 도출된다. 진·변한의 철서 자료들과는 100여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인정된다. 결국 양자를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이를 메울 수 있는 자료는 요동지역과 청천강 이북에서 형성된 세죽리-연화보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주조철기들일 수밖에 없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치는 역연대는 동반되는 명도전과 반량전으로도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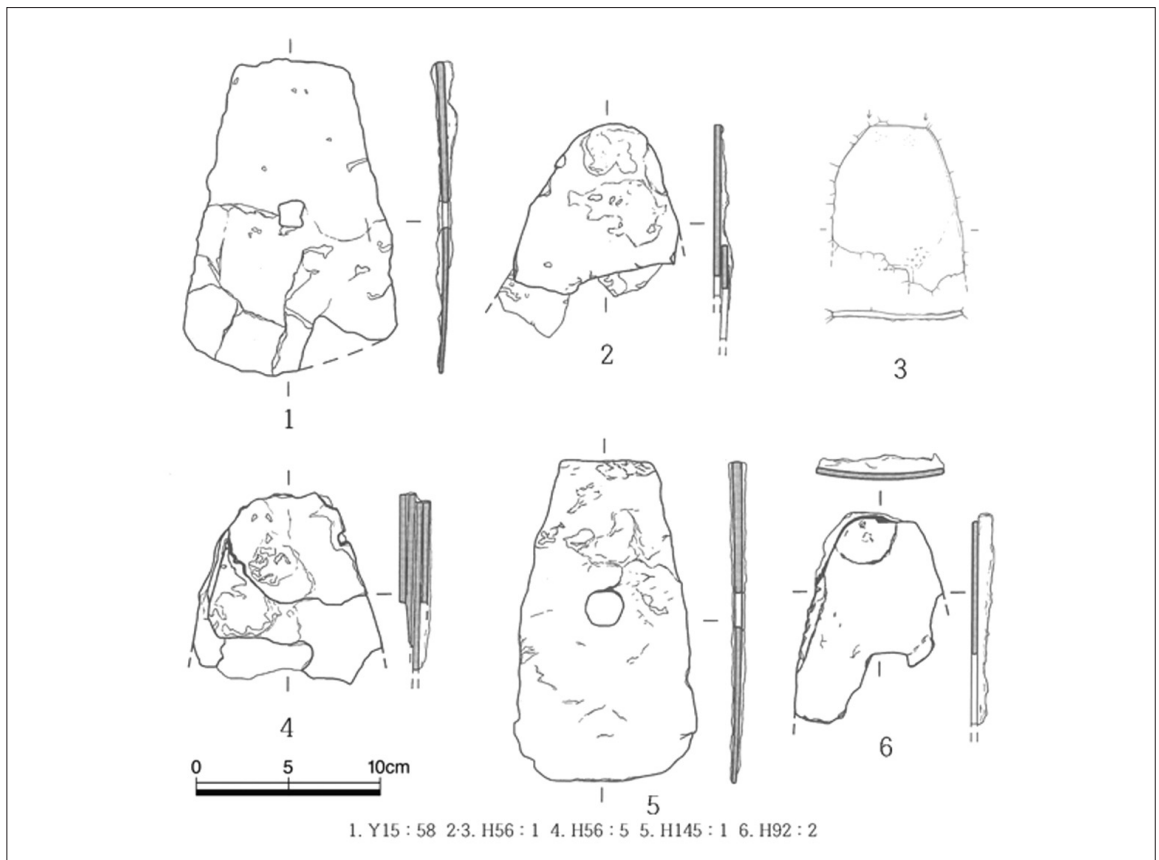
세죽리-연화보 유형은 영남지역의 초기철기 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고려

되지 않았던 주조철서를 더해서 생각한다면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란 서북한지역의 낙랑철기가 아니라 세죽리-연화보 공간의 기원전 2세기대와 통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만 서북한식 화분형토기와 주조 철서가 동반된 대성동 유적이거나 최근 삼각형점토대토기와 동반된 회도와 화분형토기,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등이 출토된 남양주 유적의 사례를 살피건대 중계지로서 서북한지역과 중부지역의 내륙 교통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이미 세죽리-연화보 유형이 유행하던 공간에는 전형적인 연식 부형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지역을 연의 정치적 지배공간이 아니라 고조선의 세력공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초기철기란 전국시대 연국이 아니라 요동지역에서 서북한 접경지역까지를 아우르는 후기 고조선 지역의 철기문화와 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화분형토기가 유행한 서북한 지역과의 관계이다. 기원전 2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요동지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북한지역의 화분형토기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토성동 486호 등의 사례처럼 분명 낙랑군 설치보다 소급되는 목곽묘도 인정된다. 위만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의 변화 등 민감한 문제가 많으나 이 발표문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도면 16〉 산동 임치 제국고성 출토 한대 철서(3은 발표자 직접 실측)

Ⅵ. 결 론

경산지역을 포함하는 진·변한지역의 '주조철서'를 분석한 결과 초기철기의 기원과 계보는 전국시대의 연국 철기에 돌 수 없음을 알았다. 나아가 낙랑군의 철기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전국시대 연국 철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의 철기문화로 정착한 기원전 2세기대의 고조선 철기와도 관련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나주 구기촌에서 출토된 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건대 중국 산둥지역에서 유통된 철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유통의 주체와 방법을 둘러싸고는 밝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어찌되었거나 철기문화의 파급은 일원적이지 않았으며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끝으로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단조제 철서가 시사하는 문제이다. 이는 지역에서 주조제 철서의 기능을 개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성 있는 농공구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정백은, 1958, 「우리나라 철기사용의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3.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李南珪,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문화」, 『한국고대사논총』제5집, 한국고대사학회.
- 孫明助, 1998, 「韓半島 中南部地方鐵器生産遺蹟의 現狀」, 『嶺南考古學』22, 嶺南考古學會.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 송계현, 2002,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지역의 초기철기문화-第11회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李南珪, 2002, 「韓半島初期鐵器文化의 流入樣相」, 『韓國上古史學報』36, 韓國上古史學會.
-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 『西安南郊秦墓』, 陝西人民出版社.
- 金武重, 2004, 「華城 旗安里製鐵遺蹟 出土 樂浪系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第40輯.
- 白云翔, 2005,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研究』, 科學出版社.
- 鄭仁盛, 2006, 「樂浪土城의 鐵器와 製作」, 『樂浪文化研究』, 東北亞歷史財團.
- 李南珪, 2006, 「樂浪地域 漢代 鐵製兵器의 普及과 그 意味」, 『樂浪文化研究』, 東北亞歷史財團.
- 春成秀爾, 2006, 「彌生時代의 年代問題」, 『新彌生時代의 始まり-第1-彌生時代의 新年代』, 雄山閣.
- 九州테크노리서치·TAC센터 大澤正己, 2007, 「樂浪土城出土 椀形滓·鐵器의 金屬學的調查」, 『東아시아에서 樂浪土城出土品의 位置-平成17年度~平成1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村上恭通, 2007, 「樂浪土城의 鐵製品」, 『東아시아에서 樂浪土城出土品의 位置-平成17年度~平成1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李成珪, 2008, 「樂浪郡에 普及된 鐵官의 鐵製 農具」, 『木簡과 文字』2號, 韓國木簡學會.
-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三卷, 雄山閣』.
- 정인성,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영남고고학』47호, 영남고고학회.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68輯, 韓國考古學會.
- 金想民, 2009, 「韓半島 鑄造鐵斧의 展開樣相에 대한 考察」, 『湖西考古學』20, 湖西考古學會.
- 孫明助, 2009, 「韓半島 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동북아 고대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전북대 BK21사업단.
- 金一圭, 2010, 「最近 調査成果로 본 韓國 鐵文化의 展開」, 『東아시아의 古代鐵文化』, 雄山閣.
- 吳江原, 2010, 「燕나라 遼東郡과 東遼河 流域 土着集團의 독특한 交流方式」, 『白山學報』제88호, 白山學會.
- 김새봄, 2011, 「원삼국 후기 영남지역과 경기·충청지역 철모의 교류양상」, 『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 임영희, 2011, 「영남지역 원삼국기 철검·환두도의 지역별 전개과정」, 『영남고고학』59, 영남고고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韓中鐵器資料集 I-중국 동북지역 출토철기-』, 금강인쇄사.
- 李昌熙, 2011, 「韓半島初期鐵器의 實年代」, 『韓國における鉄器生産』たたら研究会平成23年度北九州大會.
-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期の燕国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拡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67集.
- 中村大介, 2012, 「燕鐵器의 東方展開」, 『埼玉大學紀要(教養學部)』第48-1號(日文).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韓中鐵器資料集 II-河北省 출토 燕國 鐵器-』,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韓中鐵器資料集 III-한반도 북부지역의 초기철기-』,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이남규, 2012,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동향 -초기철기~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국립문화재연구소.
- 白雲翔, 2012, 「전국에서 서한시기까지의 연나라지역 철기문화 및 그 특색」,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石川岳彦, 2012, 「燕下都遺跡 鐵器文化의 性格」,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일규, 2012, 「韓半島 中部地域 鐵器文化의 性格과 展開樣相」,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郭京寧, 2012, 「京津地區戰國秦漢時期的燕系鐵器及野鐵遺存」,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徐海峰, 2012, 「中國河北至西漢時期的燕系鐵器與冶鐵遺存」, 『2012 동아시아 고대철기문화연구-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정인성 외, 2012a, 『嶺南地域 原三國時代の 木棺墓』, 학연문화사.
- 鄭仁盛, 2012b, 「瓦質土器의 출현과 歷年代 再論」, 『原三國·三國時代歷年代論』, 세종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3, 학연문화사.
- 鄭仁盛, 2013a, 「樂浪郡의 鐵(器)生産」, 『원삼국시대 한반도 철기문화의 제 양상』, 제8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철문화연구회.
- 鄭仁盛, 2013b, 「衛滿朝鮮의 鐵器文化」, 『백산학보』第96號.
- 李清圭, 2012, 「남한의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Ⅲ) - 동아시아의 철기문화와 고조선』, 제42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
- 이청규, 2013, 「남한의 초기철기 문화에 대한 몇 가지 논의」, 『사학지』, 단국대 사학회.
- 李南珪, 2013, 「韓半島 初期鐵器文化 流入의 몇 問題」, 『제8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철문화연구회.
- 金想民, 2013a, 「東北아시아에서 初期鐵器의 成立과 展開」,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學府.
- 김상민, 2013b,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연계·한식철기의 유입연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武末純一, 2013, 「일본의 연계 또는 전한대 관련 철기의 시기 비정 문제」,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중국 전국시대 철기문화와 동아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선미, 2013, 「완충교역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Ⅳ)-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 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 劉文兵 外, 2013, 「吉林省梨樹二龍湖遺址出土的戰國鑄造製鐵製品及其意義」, 『亞細亞鑄造技術史學會 研究發表資料集』7號, 아시아鑄造技術史學會.
- 이청규, 2014, 「遼東·西北韓의 初期鐵器文化와 衛滿朝鮮」, 『東北亞歷史論叢』, 東北亞歷史財團.

(보고문)

-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62, 「영변 세죽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유산』6.
- 김정문,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2.
- 김정우, 1964,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4.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고조선·부여·진국편-』2.